

제13강 정치철학적 의미에서의 공간(2)

(1교시)

▷ 추상적 공간개념과 현대의 자본주의

* 자본주의체제의 유지, 발달

- 관료층의 비대화
- 사회 계층구조에서의 중산층의 등장. 스스로 중산층이라는 의식이 보수화를 촉진. 19세기의 갈등의식, 계급의식이 소거됨(→그람시는 일찍이 이를 간파, 격렬한 계급투쟁이 아닌 진지전을 모색했다.)

※ Gramsci, Antonio (1891-1937)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. 마르크스주의의 결정론적 해석과 B.크로체의 관념철학에 반대하여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의 통일을 주장했으며, 자본주의가 발달한 시민사회에서 사회혁명이 일어나는 조건인 ‘프롤레타리아의 지도성의 논리와 그 실천적 기구’에 대해 참신한 이론을 전개했다.

- 자기 동일성 유지의 전략(→바깥을 안으로 흡수하는 전략. 자본주의는 비판세력까지도 교묘한 방식으로 포섭, 모든 것을 상품화시켰다.)을 통해 1950년대,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옴.
- 과거 제국주의 시대,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들이 20세기에 또다시 경제적, 문화적으로 종속되기 시작함. (한국, 베트남 등) 더불어 ‘해방주체’가 다시 ‘타자를 억압하는 주체’로 화하기도 한다.
- 대중자본주의 : 대중문화를 통한 시민 의식의 마비. 보이지 않는 초국적 권력에 의한 지배(→ “현대의 대중은 주체인 동시에 타자가 되는 기묘한 상황에 빠졌다.” 헐리웃 영화의 예)
⇒ “현대 자본주의 체제는 세련되고 역동적인 체제. 통제사회가 아닌 **관리사회**이다.”

(2교시)

* 현대사회의 세계사적 위치

- 2002, 2003년은 유래 없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(→월드컵이 촛불시위로, 그것이 다시 대선으로 이어지는 등 투쟁의 관계가 모호해졌다.)
- 사이비 유목 사회
-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 : 외관상 억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, 우리의 의식을 흐릿하게 해 체제에 순응케 한다.
⇒ 비판적, 창조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주체, 새로운 연대의 필요성. 다양한 주체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**유목적 주체**가 요청된다.